

# 씨에스윈드, 1Q26 Earning Release

□ 1Q26 주요 실적

- 매출액/영업이익 : 전년동기(1Q25) 이연효과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매출액, 영업이익 전년비 21.2%, 40.7% 감소

(단위 : 억원)	1Q26	1Q25	YoY	
			증감액	증감율
매출액	7,111	9,019	(1,908)	-21.2%
Tower	5,976	6,851	(875)	-12.8%
Foundation	1,135	2,168	(1,033)	-47.6%
영업이익	743	1,252	(509)	-40.7%
(%)	10.4%	13.9%	-	-3.4%p
세전이익	541	1,086	(545)	-50.2%
(%)	7.6%	12.0%	-	-4.4%p
당기순이익	439	954	(515)	-54.0%
(%)	6.2%	10.6%	-	-4.4%p

□ 타워수주 목표 및 수주총계

(단위 : MnUSD)

연간 수주 목표	수주 총계(1Q26)	수주 잔고	달성율	비고
1,700	228	1,023	13.4%	- 1Q26 미국·유럽 수주 88% 차지 (지역별 비중 : 미국 56%, 유럽 32%)

□ 해외생산법인 동향

생산법인명	Capacity(억원)*	법인별 특성
Tower	America	14,000 ○ 전사적 차원의 PIP(Productivity Improvement Program) 추진을 통한, 생산성·가동율 개선 및 Organic 마진 상승세 지속 노력
	Vietnam	6,000 ○ '26년에도 유럽향 육·해상 full-capacity 이어가며, 뛰어난 생산성 기반의 마진 upside 여력 지속 확대 기대
	Turkiye	3,000 ○ '25년에 이어, '26년 Nordex 타워수주 규모 상승세 지속됨에 따른 실적 상승 기여 확대
	Portugal	5,000 ○ 영국 Hornsea3 해상풍력 프로젝트 타워공급계약 체결('25.12) 등 유럽향 육·해상 타워물량 대응 지속
	China	1,800 ○ 중국 터빈사와 글로벌 타워 공급을 위한 '2026 Capacity agreement 체결(Goldwind, Envision)로 '26년 full-capacity 운영
	Taiwan	1,000 ○ Round 3.3부터 LCR 전면 폐지 영향으로 증장기 대만 해상풍력타워 수요 대응안 검토
Foundation(Denmark)	5,000 ○ '26년 Aalborg 공장 생산성 안정화에 기반한 원가효율성 개선, 신규 수주 확보 노력 지속(유럽향 하부구조물)	

\* Capacity : 2026년 연말 기준

< 글로벌 풍력산업 동향 >

□ 글로벌 정책 동향

구분	내용
Global	- '25년 글로벌(중국제외) 풍력 신규설치량 47GW(+22% yoy) 기록, 북미 육상풍력(8.5GW) 및 유럽 육/해상풍력(18.2GW) 파이프라인 확대 큰 기여 - 증장기 핵심 성장시장인 MEA 향후 10년간('26~'35년) 8배 성장 예상, 이집트 육상풍력 누적설치량 29.5GW, 사우디 육상풍력 누적설치량 21.9GW 전망
US	- PTC 일몰('26.7)에 따른 설치수요 급증과 '30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'24년 대비 130% 증가 예상, '26~'30년 육/해상풍력 누적설치량 48GW 전망 - 육상풍력 신규설치량 전망 : '25년 7.6GW → '26년 8.9GW → '27년 10.3GW(CAGR 16.4%)
Europe	- 영국 : 역대 최대규모인 AR7 8.4GW 입찰 결과 발표('26.1)에 이어, AR8 입찰 공고 게시 예정('26.7)으로 해상풍력 발주 사이클 가속화 기대감 확산 - 독일 : '30년까지 육상풍력 신규설치목표 상향(10GW → 12GW), '34년까지 육상풍력 누적 설치량 60GW 전망하는 등 적극적인 정부지원 기초 재확인 - 해상풍력 입찰 본격화 : 네덜란드 2GW('26.9), 프랑스 10GW(~'26.2H), 아일랜드 1GW('26.2H), 덴마크 3GW(~'27.12) 등 주요국 대규모 해상프로젝트 입찰 게시 - 독일·네덜란드, 해상풍력 입찰 가속화 위한 CfD* 지원체계 전환(~ '27.12)으로 풍력 프로젝트 수익성 안정화 및 투자 가시성 회복 주도
Asia	- 한국 : 해상풍력특별법 시행('26.3) 및 1.8GW 해상풍력 입찰 공고(약 12조원 규모, '26.3), 증장기 해상풍력 경쟁 입찰 로드맵 발표(~'26.6) 계획

\* CfD(Contracts for Difference) : 기준가격을 통해 발전사업자의 수익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

(source : WoodMac, EIA, IEA)

□ 고객사 동향(1Q26 실적발표)

구분	내용
터빈사	- Vestas : 해상풍력제조 ramp-up 기반 육/해상풍력 실적 확대로 매출 +14.4% yoy, EBIT 마진 +2.8% yoy(역대 분기최고치), 수주 +43.7% yoy(미국 873MW 수주 확보) - GEV : 육상풍력 실적 감소 및 해상풍력 손실로 매출 -25% yoy, EBIT 마진 -18.8%p yoy, 반면 육상풍력 수주 +85% yoy 및 하반기에도 육상풍력 중심 수주 확대 전망 - Nordex : 육상풍력 실적 증가 및 ASP 상승으로 매출 +10.6% yoy, EBITDA 마진 +2.7%p yoy, 반면 수주 역기저효과로 -14.3% yoy 및 수익성 중심 수주 확대 노력 - SGRE : 매출 -3.9% yoy, 반면 품질 이슈 완화 및 비용정상화로 영업이익률 +8.1%p yoy, 전년 대형 해상풍력 수주 기저효과로 수주 -33.7% yoy
발전사	- Orsted : 해상풍력 발전량 증가로 매출 +33.4% yoy, 조정 EBITDA +11.1% yoy, 반면 미국 해상풍력 프로젝트 손상차손 등으로 조정 순이익 -46.4% yoy